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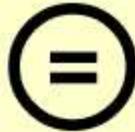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의 휴대폰 사용경향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2007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혜경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의 휴대폰 사용경향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지도교수 이 정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 혜 경

김혜경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주 심 교육학박사 이 경 화 (인)

위 원 철학 박사 이 희 영 (인)

위 원 철학 박사 이 정 화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용어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휴대폰 중독	8
2. 자기효능감	17
3. 자기통제력	22
III. 연구 방법	25
1. 연구 대상	25
2. 연구 절차 및 도구	26
3. 자료 분석	30
IV. 연구 결과	32
1.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계	32
2.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비교	33
3.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35
4.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	37
V. 논의 및 결론	39
1. 논의	39
2. 결론	41
참고문헌	44
부 록	51

표 목 차

<표 1> 설문지 표집 대상 및 회수 현황	25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26
<표 3> 휴대폰 중독 진단 검사의 요인별 신뢰도	28
<표 4>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별 신뢰도	29
<표 5>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계	32
<표 6> 학년과 성별에 따른 휴대폰 중독 점수의 기술 통계치	33
<표 7> 학년과 성별에 따른 휴대폰 중독점수 분석 결과	34
<표 8> 학년에 따른 휴대폰 중독적 사용 현황	35
<표 9> 성별에 따른 휴대폰 중독적 사용 현황	35
<표 10>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36
<표 11>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	37

A STUDY ON MOBILE PHONE USAGE TREND OF THE PRIMARY SCHOOL PUPIL
AND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Hae Kyong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addicted mobile phone use of primary pupil and the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Through a comparison of the self-efficacy and the extent of self-control between the group using the mobile phone addictively and the group using non-addictively, this study aims to be a basic research for coming up with ways to reduce the negative situations due to mobile use.

The research object is the primary school pupils, who are in their 5th and 6th grade and attending at school in Pusan area. Among those pupils, a mobile phone addiction test was conducted on 558 pupils who use mobile phones all the time. After the test, each of 140 pupils who have an addiction score of over 25% and below 25% are the final analysis object, dividing an addictive use group and non-addictive user groups.

To do this, this study consider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 depending on sex was analyzed by Chi-square(χ^2). Next, T-test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between addictive mobile use group and non-addictive user groups.

The research methods for the study are a mobile addiction questionnaire by Jang Hye-Jin(2002) referencing an internet addiction test of Young(1996), an academic self efficacy which measures academic self-efficacy by Kim A-Young(2002), and a self-control measure questionnaire by Kendall and Wilcox(1979), which was reconstructed by Nam Hyun-Mi(1999).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dditive use of mobile phone has no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sexes. Second, the addictive mobile use group has lower self-efficacy compared with non-addictive mobile use group. Among the subordinate causes of the self-efficacy except self-confidence, the work level preference and self-control efficacy scor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addictive mobile use group. Third, the addictive mobile use group has less self-control than that of the non-addictive group. The self-efficacy and the ability of self-control are closely related to work the performance measure. The low self efficacy and self-control of the pupils using mobile phone addictively is associated to the following behaviors; a distracted school life and lack of concentration in class.

Consequent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a point to a society of which mobile phone use is widespread. The age group of mobile use is getting lower and the percentage of mobile among pupils is getting higher nowadays. Therefore, desirable and temperate use of mobile phone should be strongly guided at schools and hom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의 대표적 통신 매체 중 하나인 휴대폰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매년 급속도로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반 해도 휴대폰은 크기와 성능면에서 지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수준이었으며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어 부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졌다. 그러나 정보통신부(2007)자료에 의하면 2007년 3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41,101,167명으로 83.9%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휴대폰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졸업·입학 선물 중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휴대폰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원인은 기존의 유선전화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휴대폰만이 가질 수 있는 이동성과 휴대성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또한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휴대폰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신 수단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 음악, 동영상, 위치추적, 교통요금 결제, 신용카드 서비스, 전자상거래, 교통정보 등 그 이용의 폭이 넓어지면서 멀티미디어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있어 휴대폰은 적지 않은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욕구에 따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2004)이 전국의 중학생 888명(51.7%)과 인문계 고교생 548명(31.9%), 실업계 고교생 283명(16.5%)등 청소년 1,7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휴대폰 매체의 이용은 지난 2000년 인터넷 이용 확산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점차 가속화하는 현상을 보였다. 1999년 12.1%에 그친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률은 2001년 43.4%, 2002년 47.1%, 2003년 52.7%, 2004년 70.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10명중 7명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1주일 평균 21.9통의 음성통화와 142.23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중독 현황이 심각함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등장한 컴퓨터의 보급 이후 청소년들의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장혜진, 2002), 휴대폰이 중요한 통신수단의 새로운 매체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다 사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중고생 10명 가운데 7-8명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안해하거나 허전해하기도 한다(박길성, 2001; 이종숙, 2001;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이처럼 휴대폰이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되면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또래집단간의 유대성을 강화하며, 문자메시지나 게임을 통해 오락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휴대폰이 주는 편리성과 사교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되고 있다.

휴대폰 과다사용 청소년들의 경우 비과다사용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존중감이 낮고, 우울 및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곽민주, 2004; 김정숙, 2003; 정진영, 2005). 또한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의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MMPI)에서도 비중독적 사용집단에

비해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Sc)척도 및 경조증(Hypomania, Ma)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분포를 보였다(박순천, 백경임, 2004).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차원에서도 휴대폰 중독사용 집단이 비중독 사용 집단에 비해 애착-의존성 및 애착-불안 정도가 높은 반면 애착-친밀감은 낮은 것으로 장혜진(2002)은 보고하였다. 이처럼 휴대폰 중독은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시험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등 학업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휴대폰 중독사용 집단과 비중독 사용 집단 간 성적을 비교한 장혜진(2002)의 연구에서 중독 집단의 성적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 스스로도 휴대폰의 사용이 수업시간과 공부에 방해를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곽민주, 2004).

최근 언론을 통해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휴대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이 점차 많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고 이미 많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영순(2004)의 연구에 의하면 휴대폰을 처음 사용한 시기가 초등학교인 경우는 5.9%, 중학교의 경우는 1학년 14.5%, 2학년 26.0%, 3학년 23.7%로 과반수 이상인 6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규(2003)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19.4%, 중학생의 69.7%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박덕호(2003)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40.4%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을 밝혀 예방 및 개입 전략에 활용하는 연구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져야겠고,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휴대폰소유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문제점 여부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가 이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도 충분히 예측되어진다. 휴대폰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짐을 감안한다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 임경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집단은 자기효능감과 자기 통제력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이들 변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도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김남희, 2002).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를 나타낸다(Mischel, Schoda & Peake, 1998)는 연구와 관련지어 본다면 단순한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으로만 얽려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와 긴밀한 상호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은 중학교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학업 및 학습태도와 함께 학업성취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지므로, 이들과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에서의 성비율이 남성이 더 많았음을 보고하는 결과(김남숙, 2002; 박영희, 2002)와는 달리 휴대폰 중독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휴대폰 사용에 중독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양심영, 2002; 장혜진, 2002) 선행연구와 여성이 남성보다 휴대전화 중독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된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휴대폰의 중독 정도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혀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중 저학년보다 비교적 휴대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을

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간의 심리적 특성을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아울러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정도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실태 파악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현상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고학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 정도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간에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이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은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2)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간에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 4) 휴대폰 중독적 사용 집단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간에 자기통제력은 차이가 있는가?

3. 용어 정의

가. 휴대폰 중독적 사용

휴대폰 중독은 인터넷 중독과는 달리 개념적인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중독과 Orford(2001)와 Griffiths(1999)의 중독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휴대폰 중독을 휴대폰에 대한 내성, 의존, 집착, 강박, 일상생활의 문제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정의내리고자 한다. 즉,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답답하여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는 심리적 ‘의존’상태가 발생하고, ‘내성’이 생기어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며,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는 강박 경향이 있어서 이동전화 사용에 지속적으로 ‘집착’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휴대폰 중독이라 하고, 휴대폰 중독 척도(임경미, 2005)를 통해 총점이 상위 25%인 집단을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으로, 하위 25%인 집단을 비중독 사용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수준선호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김아영, 박인영, 2001; Kim & Park, 2000)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얻어진 점수를 의미한다.

다.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Logue(1995)는 자기통제를 ‘지연되지 않고 주어지는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반대의 개념으로 충동성(impulsiveness)은 지연된 결과보다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를 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대체로 자기통제력은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제작(남현미, 1999)한 자기통제력 척도 설문지의 산출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휴대폰 중독

가. 휴대폰 중독의 개념

휴대폰 중독에 대한 개념정의는 기존 연구들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먼저 연구가 이루어진 인터넷 중독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정의하고 있다.

장혜진(2002)은 ‘중독적 사용’이라는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은 휴대폰이라는 매체에 접근한 후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현실 생활에서 병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경험하는 정도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향성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Goldberg(1996)의 인터넷 중독 진단기준을 기반으로 의존, 내성, 초조·불안, 금단의 4가지 증상으로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정의하였다.

박순천과 백경임(2004)은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개념 정의를 휴대폰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적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적 없이 휴대폰을 충동적으로 조작하고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통제력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현실생활에서의 불편을 경험하고, 의존적이고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라고 정의하였다.

한주리, 허경호(2004)는 ‘이동전화’중독이란 휴대전화 사용에 몰입하여 통제

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입히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양심영과 박영선(2005)은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휴대폰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통제력을 잃어 사용자의 생활양식이나 기능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휴대폰 중독'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충동조절 장애라는 정신의학적 중독 개념적 적용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서의 휴대폰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한국의 정보환경에서의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선 휴대폰 중독은 Goldberg(1996)의 병적 컴퓨터의 사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라 휴대폰의 병리적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사회 기능적 측면의 지장을 염두에 두었다. 휴대폰의 과다한 사용의 결과를 생리적 내성의 발달과 금단증상 등 신체적인 의존성보다 역할기능의 손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나은영(2005)은 이동전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밀착관계를 '애착이용'으로 보고 이를 '매체에 대한 강한 심리적 의존성을 지니는 이용'으로 개념화하였다. 발달심리학에서 초기 어머니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된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분리불안 또는 상실에 의한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게 된다(Ainsworth, 1969). 이처럼 휴대폰의 사용에 있어서 불안정한 애착 이용은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 외에 최병목 등(2005)은 휴대전화 과다사용이나 중독과 동일한 개념으로 '휴대전화 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휴대폰 중독이라는 개념은 국내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개념 정의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휴대폰의 과다사용을 기본전제로 하여 이를 사용자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워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

분이다. 또한 ‘휴대폰 중독’이라는 명확하고 병리적인 개념을 사용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독적 사용, 의존, 몰입, 불안정한 애착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휴대폰 중독’을 진단할 만한 기준이 부족하고, 또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병리적 증상이라고 간주하기보다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중독적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이란 휴대폰이라는 매체에 접근한 후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현실 생활에서 문제 행동을 경험하는 정도의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 휴대폰 중독과 관련 변인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휴대폰 중독의 위험성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특징만을 단순 제시하기 보다는 휴대폰 중독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찾아내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휴대폰 중독사용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집단은 비중독적 사용집단보다 낮은 정서 안정성으로 인해 불안감이 높으며(장혜진, 2002; 황광민, 2005), 정서적으로 불안정

하고 미성숙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휴대폰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박순천, 백경임, 2004).

박순천과 백경임(2004)에 의하면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은 충동적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정화시킬 만큼의 여유 없이 자신을 쏟아내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해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진정한 소통 없이 감정을 보고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양심영과 박영선(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충동성이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사용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할 때 즉각적으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성향, 즉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낮으며(박순천, 백경임, 2004; 임경미, 2005), 강동진(2005)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과다사용 집단에 비해 비과다 사용 집단의 내외통제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개념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등으로 인해 휴대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된다(김선남, 김현욱, 2004; 나은영, 2001)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곽민주, 2004; 김정숙, 2003; 양심영, 2002; 이병길, 2005; 황광민, 2005)에서 휴대폰 과다 사용집단이 비과다 사용집단에 비해 높은 우울점수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양심영과 박영선(2005)의 연구에서는 강한 우울성향이 휴대폰 중독에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외로움 또한 휴대폰 중독에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김경아, 최명선, 2006; 박웅기, 2003)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의 심리적 특성 외에 사용 동기적 특성 또한 중독과 비중독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중독적 사용 집단은 주로 휴

대폰을 의사소통 기능이 아닌 다른 오락적 기능으로 사용하거나, 스트레스 해소의 동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박순천, 백경임, 2004; 양심영, 박영선, 2005; 이병길, 2005).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휴대폰 소유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많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자메일을 보내기 위해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한다(이명규, 2002). 또 부모의 입장에서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연락을 위해 휴대폰을 더 많이 소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학생이 좀 더 휴대폰 중독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조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휴대폰 사용에 중독되는 경향을 보였다(김정숙, 2003; 양심영, 2002; 장혜진, 2002). 또한 한국정보문화 진흥원(2007)이 공개한 휴대전화 중독 원인 분석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금단 증상과 내성 증상에서 여성이 각각 2.46점과 2.16점으로 남성의 2.28점과 2.07점보다 높고(곽민주, 2004; 김영순, 2004; 김정숙, 2003; 박순천, 백경임, 2004)의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휴대폰 중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독성향이 더 높게 나타나는(유경애, 2004; 이현주, 2004; 조정희, 2005; 최정애, 2004; 현승구, 2004) 인터넷 중독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며, 그 이유는 기계로서의 컴퓨터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보다 익숙하고 쉽게 친숙해지기 때문이다. 또 여학생에게 인터넷이 덜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인터넷 검색에서 정보가 남자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더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휴대폰의 경우 매체 자체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인터넷 보다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대폰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본다(장혜진,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에게서도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휴대폰 중독사용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형태는 이용충족의 시각에서 보면 이들이 속한 환경이 얼마나 대체만족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김선남, 김현욱, 2004). 또한 휴대폰 중독은 단일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휴대폰중독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중독에 빠지기 쉬운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개체로서의 분리를 추구하면서도 부모와 연결되어있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Marcoen & Brumagne, 1985). 나은영(2001)은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가 가정 내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되는 분위기라면 이동전화에 의존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으며,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이동전화를 통해 발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최병목(2002)은 전체적으로 평등 대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더 낙관적인 생각을 하며, 사회성이 더 높고, 휴대전화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가족 내의 대화 패턴이 휴대전화의 건강한 사용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환경은 청소년의 생활기능 수행의 장으로써 학교에서 긍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다른 행동에 의해서라도 인정받고자 위험행동으로의 개입 동기가 될 수 있음이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위험행동의 한 결과로써 휴대폰의 역기능적 사용 발현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양심영, 박영선, 2005). 이와 같은 맥락으로 황광민(2005)의 연구결과에서 휴대폰 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낮았다.

그 외에 청소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향, 과시성향, 신뢰성향이 강할수록 휴대폰의 사용기간이 길어진다고(황광민, 2005).

다. 휴대폰 사용 실태

성별 및 학년, 학교급 등에 따라 휴대폰 중독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휴대폰을 구입하고 사용하게 된 동기, 하루 평균 사용 시간, 휴대폰을 처음 사용한 시기, 그리고 휴대폰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휴대폰 사용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년별로는 초등학생(36.8%)보다 중학생(43.5%)이 휴대폰 및 인터넷 중독성향이 더 높았고(이명규, 2003), 중학생(18.8%)보다는 고등학생(29.5%)이 휴대폰을 더 중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민주, 2004). 고등학생 내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36.4%)이나 3학년(40.7%)보다 고등학교 1학년(77.5%) 학생이 휴대폰 중독적 사용자가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김영순, 2004),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가 3학년 때에 비해 중독적 사용군이 더 많았다는 연구도 있었다(정진영, 2005). 연령에 따라서는 15세와 18세에서 비중독적 사용군이, 16세와 17세에서 중독적 사용군의 비율이 더 많았다(정진영, 2005). 인터넷 중독과 학년과의 관계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독 정도가 높았으나(노수원, 2003; 유순옥, 2003; 현승구, 2004)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24%, 1학년 학생이 16.3%, 3학년 학생이 16.1%로 오히려 학년이 가장 높

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중독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최정애, 2004). 이는 고등학교 1학년은 신입생이므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 준비나 취업 준비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최정애, 2004).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위해서가 76.1%로 가장 높았고, 저학년인 초등학생일수록 부모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 (57.9%) 휴대폰을 사용하며 고학년인 고등학생일수록 문자메일 (79.6%)의 목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규, 2003). 이러한 휴대폰 이용 동기는 중독적 사용집단과 비중독적 사용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장혜진, 2002). 즉, 중독적 사용집단이 또래 집단의 영향을 더 크게 지각하여 또래 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목적 때문에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곽민주(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 동기 중 ‘주변의 친구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주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동기가 높을수록 미디어에 중독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습관이나 시간보내기, 사교 등과 같은 관습적 이용 동기가 정보 이용과 같은 도구적 이용 동기에 비해 이동전화 중독과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용기, 2003).

휴대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중학교 때가 51.6%(210명)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시기가 35.9%(146명), 초등학교 5~6학년 때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학생들은 1.7%(7명)나 되었으며, 휴대폰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겨우 5.4%에 불과하였다(박순천, 백경임, 2004). 최근에는 사용 시기가 점차 어려워 초등학교 때 휴대폰을 처음 사용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8%(24명), 중학교 1학년 때 16.4%(82명), 중학교 2학년 때 22.8%(114명),

중학교 3학년 때 25.3%(127명)로 중학교 때가 총 64.5%, 고등학교 1학년 때 25%(125명), 고등학교 2학년 때 4.4%(22명), 고등학교 3학년 때 1.4%(7명)로 고등학교 시기는 총 30.8%였다. 이처럼 휴대폰의 사용 시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휴대폰을 일찍부터 사용한 학생일수록 중독적 사용자가 많았다(김영순, 2004).

청소년보호위원회(2001)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통화시간이 3분 이내의 간단한 통화를 한다는 응답이 13%에 불과하고 70% 이상이 5분 이상의 장시간 통화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서 31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약 19.2%로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두 통화 이하의 경우 대도시는 19.7%인 반면 면지역으로 갈수록 점차 그 비율이 높아져 면 지역은 27.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하루 평균 총 사용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50분을 사용하며, 일일 180분(3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도 21.47%에 달하였다. 이러한 이용시간은 휴대폰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곽민주, 2004; 김영순, 2004; 장혜진, 2002; 정진영, 2005), 하루 3시간 이상 휴대폰을 이용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중독확률이 4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양심영, 박영선, 2005). 이는 인터넷 중독에서도 같은 결과로써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김미영, 2003; 이현주, 2004). 특히 류진아(2004)의 연구에서는 이용 시간이 실재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상담 여부에 따른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상담을 받아본 경우가 비중독 집단(11.82%)에 비해 중독 집단(35.45%)에서 훨씬 많았고, 상담을 받았던 학생들이 받지 않았던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 중독확률이 높았다(양심영, 박영선, 2005). 이

러한 결과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모나 교사의 개입이 비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상담여부에 따른 휴대폰 중독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연구 하나로 단정 짓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2. 자기효능감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인간의 사고가 행위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수행능력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그 수행능력이 실제 수행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동기유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 동기요인으로써 중요한 것은 자기 수행능력에 대한 지각 또는 판단이다. 아무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가 갖추었다고 판단 또는 지각하지 못하면, 실천할 동기가 유발되지 않아 결국 인간은 행동하지 않거나 자기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높을 때보다 수행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이처럼 자기 수행능력에 대한 지각적 판단을 자기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신감(self-confidence)과 자기효능감은 개념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자신감이란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실성 정도 또는 믿음이라고 정의된다(Vealey, 1986). 자신감은 믿음 또는 확신의 강도를 언급하나 인지된 능력의 구체화된 수준을 말하지 않는 반면, 자기효능감은 그 믿음의 강도와 인지된 능력 수준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의 조작개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이론에서 효능 기대

와 결과 기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효능 기대가 어떠한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면, 결과 기대는 그 행동에 의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판단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고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효능 기대를 높이는 것이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만약에 그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지하면, 결과 기대는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능 기대는 행동의 변화를 매개하는 중요한 기제로 가정되었으며 효능 기대가 결과 기대보다 과제 성취의 향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게 하여도 스스로 그와 같은 행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믿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Banura(197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다음의 세 가지의 차원의 정도에 따라 성취 행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첫째, 자기효능감의 수준으로 이것은 과제나 수행을 얼마나 어렵게 보느냐와 관련된 차원으로 과제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낮아져 낮은 성취 기대를 보이고, 과제가 쉽다고 판단되면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져 높은 성취 기대를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강도인데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과제의 성취를 위한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와 관련된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약한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쉽게 소거되지만 강한 자기효능감은 쉽게 소거되지 않으며 대처 행동을 찾게 된다. 셋째, 자기효능감의 일반화인데 이것은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범위의 상황이나 대상에 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차원이다. 개인의 과거 경험에 따라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화되는 자기효능감은 그 범위가 넓게 형성되기도 하고 좁게

제한되기도 한다.

한편, Bandura(1986)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반복된 과제관련경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의 네 가지 중요한 정보원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취 경험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반복되는 성공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고 반복되는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 두 번째 대리 경험은 타인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생기는 대리적 경험이다. 이를테면 선행 경험이 없어서 자신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모델의 수행 결과에 따라 자신의 수행 결과를 추론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언어적 설득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언어적 설득에 의해서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 자기 혼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불안, 스트레스, 각성, 피로, 정서 상태와 같은 생리적인 상태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정보원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자동적으로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인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Bandura, 1986).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인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이 대두된 이후 임상, 산업, 교육 등 다양한 장면에서 유용한 개인차 변인으로 그 효과에 대한 검증과 실제적 활용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교육장면에서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수많은 연구와 실제적 응용 프로그램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Bandura가 제시하는 자기효능감은 주로 특정 장

면이나 과제와 관련된 상황 특수적 혹은 과제 특수적 효능 기대의 개념으로 적용되어왔다(Bandura & Schunk, 1981; Zimmerman & Bandura, 1994). 그러나 이러한 좁은 범위의 효능 기대는 특정 과제와 관련된 수행을 예측하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개인의 다소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의 수행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현장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다루는 학업 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효능기대를 물어 이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을 평가하여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연구해 왔다(Bong, 1997; 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그러나 이렇게 날개의 과제에 대한 효능기대 점수를 합산해서 나온 점수가 개인의 학업상황 전반에 걸친 수행을 예측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는 구성 개념을 과연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개념을 학업 내지는 교육장면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학생 개인의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대두되었다(김아영, 1997; Kim & Park, 2000).

위와 같은 맥락에서 김아영과 박인영은 Bandura의 초기 이론 개발 시에 제시했던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수준선호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김아영, 박인영, 2001; Kim & Park, 2000). 이 검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학업성취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변인과의 관계구조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검증도 실시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김아영, 2002).

자신감 :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이다(Sherer et al., 1982). Bandura(1986)는 자신감을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상황 특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지만, 이를 전반적인 학업적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자신의 전반적인 학문적 수행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 또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반응으로 표출된다(Bandura, 1986; 1993).

자기조절효능감 :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이다. 자기관찰(Self-observation)이란 자신의 행동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의도적 주의집중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의 진전정도를 평가하는 자기조절 기능을 하며,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 자기판단(Self-judgement)이란 자신의 목표와 현재의 수행을 비교하는 것으로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 목표특성, 목표달성의 중요성, 수행에 대한 귀인에 따라 수행의 긍정성 또는 부정성 여부가 결정된다. 자기반응(Self-reaction)이란 목표과정의 만족 여부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고,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스스로 동기화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Bandura, 1986; Schunk, 1990; Zimmermann, 1989). 자기조절효능감은 앞서 언급된 자기관찰, 자기판단과 같은 인지적 과정과 자기반응과 같은 동기적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과제수준선호 : 자기효능감 수준은 행동상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한다(Bandura, 1988; Latham & Locke, 1991).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며, 그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과제수준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오희숙, 2002).

3. 자기통제력

가. 자기통제력의 개념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반복적인 작업에 주의를 분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학자에 따라 정의하는 바가 다른데 Logue(1995)는 자기통제력을 선택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작은 결과보다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반대의 개념으로 충동성이라고 정의하였다. Shaffer(1999)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으며, 남현미(1999)는 청소년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회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Gottfredson등(1990)은 어린 시절 형성되는 자기 통제력이 자녀양육의 방법에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는 부모의 관심과 보호, 감독,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인지 및 처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쉽게 단기간의 쾌락을 얻기 위해 범죄나 비행 등 다양한 일탈적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위험 추구성, 충동성이 적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특히 충동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고 한다(김남숙, 2002). 또한 자기통제력이 약한 경우에는 충동적이고 문제행동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거절을 잘 못하고(김지은, 1998), 인지·사회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행동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소속감

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권병재, 1991). 이 외에도 자기통제의 실패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으로는 섭식장애행동, 약물중독 및 오남용, 무절제, 교육장면에서의 학업부진, 부정행위, 무절제한 금전사용, 도박, 절도 등을 들고 이를 설명하고 있다(Logue, 1995).

이렇게 인터넷 중독을 포함한 다른 중독성의 특징과 유사하게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정상 집단에 비해 스스로 과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조절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즉, 낮은 통제력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장혜진, 2002).

나. 자기통제력에 대한 선행 연구

자기통제력과 휴대폰 중독과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나은영(2001)은 일반적 대인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상대방의 즉시적 반응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전달할 메시지가 떠오르자마자 즉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돌입하고자 하는 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휴대폰이라는 매체를 더욱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의사소통의 욕구를 지연시키지 못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휴대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이다. 장혜진(2002)은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자기통제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집단에서 자기통제력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한주리와 허경호(2004)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중독 증상 중 병적 몰입, 통제 상실, 강박증상은 자기통제력과 부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휴대폰 중독증상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통제력이 약하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자와 비중독적 사용자의 자기통제력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과 해운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가 급지 1개교, 나 급지 2개교, 다 급지 2개교, 라 급지 1개교의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초등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집단과 비중독적 사용집단간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 5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 후 총 578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20부를 제외한 나머지 558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표1 참조).

<표 1> 설문지 표집 대상 및 회수 현황

구분	배부수	회수수	회수율(%)	부적격부수	처리수	처리율(%)
전체	580	578	99.7	20	558	96.5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집단과 비중독적 사용집단과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휴대폰 중독 질문지(장혜진, 2002; 임경미, 2005)를 통하여 휴대폰 중독 점수가 상위 25%인 중독적 사용 집단과 하위 25%인 비중독적 사용 집단으

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280명이 분석되었다(표2 참조).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관련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학생	226	40.5
	여학생	332	59.5
	합계	558	100.0
학 년	5학년	256	45.9
	6학년	302	54.1
	합계	558	100.0
중독여부	중독적 사용 집단	140	25.0
	비중독적 사용 집단	140	25.0
	합계	280	50.0

2. 연구절차 및 도구

가. 연구 절차

이 조사는 2007년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대상 초등학교 6개교를 방문하여 먼저 담임교사들의 협조를 구했다. 협조의 내용에는 작성 시 유의사항과 누락되는 문항이 없도록 주의시켜줄 것 등을 포함하였다.

설문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배부, 회수하는 간접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되었다.

나. 연구 도구

(1) 휴대폰 중독 설문지

이 연구에서 휴대폰 중독 설문지로는 장혜진(2002)이 직접 작성하여 임경미(2005)가 사용한 휴대폰 중독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참고로 제작한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되어있다. 처음에 인터넷 중독 검사지에서 인터넷이라는 용어 대신 휴대폰으로 수정한 15문항과, Goldberg(1996)의 중독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10문항을 선정하여 총 25문항이었던 것을 예비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20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검사지는 예비조사에서 내적 합치도가 .82로 높게 보고되었다. 20문항에는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 정서적 변화, 행동상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5점으로 이루어진 Likert 척도이며, 총점은 20점에서 100점 사이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휴대폰 중독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휴대폰 사용집단의 중독여부에 대한 분류는 중독점수 총점의 사분위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25%를 중독집단, 하위 25%를 비중독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장혜진, 2002; 양심영, 2002; 박덕호, 2003; 곽민주, 2004; 정진영, 2004; 황광민, 2005), 양심영(2002)과 김정숙(2003)은 상위 30%인 집단을 중독(과다사용)집단으로 보았으며, 하위 30%를 비중독(비과다사용)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군과 비중독적 사용군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장혜진(2002)의 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분위를 기준으로 상위 25%를 중독적 사용집단,

하위 25%를 비중독적 사용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와 휴대폰 중독 진단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3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휴대폰 중독 진단 검사의 요인별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내용	<i>Cronbach's a</i>
강박적 금단현상	4, 5, 7, 8, 9, 12, 13, 15, 16, 19, 20	과제소홀, 확인, 공허함, 분노, 수면장애, 신경증, 수업중 사용, 애착, 사용비중 증가, 불안감	.89
사용통제의 어려움	1, 2, 3, 6, 10, 11	지속적 사용, 과제소홀, 주변의 불평, 성적 부진	.84
의존적 성향	14, 17, 18	기분전환, 피로움 탈피, 반복적 사용	.72
계			.90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 계수는 .72에서 .90 사이로 신뢰할만한 수준에 있었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업내지는 교육 현장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학생 개인의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인 김아영(2002)의 학업적 효능감 척도(Academic self Efficacy, ASE)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수준선호의 3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수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과제수준선호 10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척도로 문항 당 1~6점(1; 전혀 아니다 ~ 6; 매우 그렇다)으로 채점하며 총점의 범위는 28~168점이다. 김아영(2002)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는 3개의 하위 요인에 대해 각각 .77, .88,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별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i>Cronbach's a</i>
자신감	8	4, 5, 10, 12, 15, 18, 23, 26	.69
자기조절효능감	10	2, 3, 8, 9, 13, 16, 20, 22, 25, 28	.86
과제수준선호	10	1, 6, 7, 11, 14, 17, 19, 21, 24, 27	.67

(3) 자기통제력 척도 설문지

자기통제력 척도 설문지는 남현미(1999)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Kendall과 Wilcox(1979)가 제작한 자기통제력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 SCRS)와 Humprey의 T-SCR 도구를 번안하여 청소년에게 맞도록 수정한 것을 재구성한 검사지이다.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는 보다 집중력이 있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며,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는 충동적이고 자신위주로 생각하며,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향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5점으로 이루어진 Likert척도이며, 총점은 20점에서 100점까지이다. 자기통제력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은 회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크다고 본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남현미(1999)의 연구에서 검사지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 계수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의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1,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다.

둘째, 연구문제 2,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과 카이제곱(χ^2)검증을 실시한다.

셋째, 연구문제 2,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 간에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중독 점수 상·하위 25%에 해당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각각 중독적 사용 집단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 *t*-검증을

실시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따른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다.

넷째, 연구문제 3. 휴대폰 중독적 사용 집단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간의 자기통제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다.

이러한 통계분석에는 SPSS 12.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계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정도와 심리적 변수인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계

	중독	효능감 (과제수준)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중독	-					
효능감 (과제수준)	-.153*	-				
효능감 (자기조절)	-.310**	.471**	-			
효능감 (자신감)	-.091	.306**	.159**	-		
자기효능감	-.254**	.803**	.763**	.627**	-	
자기통제력	-.484**	.394**	.574**	.158**	.515**	-

* $p < .05$, ** $p < .01$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과는 $r = -.09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과제수준선호’($r = -.153$)와 ‘자기조절효능감’($r = -.310$)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기통제력 또한 $r = -.48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이 비중독적 사용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 중 과제수준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이 낮음을 알 수 있고 자기통제력 또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비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휴대폰 소유자 전체에서 성별에 따른 중독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휴대폰 사용에 관한 남녀별 및 학년별 중독점수를 비교해보면 <표 6>, <표 7>과 같다.

<표 6> 학년과 성별에 따른 휴대폰 중독 점수의 기술 통계치

학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5	남 (101)	34.97	(10.95)
	여 (155)	33.85	(11.99)
	전체 (256)	34.29	(11.58)
6	남 (125)	35.37	(13.74)
	여 (177)	37.36	(13.21)
	전체 (302)	36.54	(13.44)
합계	남 (226)	35.19	(12.54)
	여 (332)	35.72	(12.76)
	전체 (558)	35.51	(12.66)

<표 7> 학년과 성별에 따른 휴대폰 중독점수 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학년	508.957	1	508.957	3.159
성별	25.513	1	25.513	
학년*성별	322.848	1	322.848	.160
오차	88250.429	554	159.297	2.027
합계	89315.471	557		

전체 558명 중 학년 간 중독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면 5학년의 경우 평균 34.29점이고 6학년은 평균 36.54점으로 6학년이 5학년보다 평균 점수는 높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휴대폰 중독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평균 35.19점이며 여학생은 35.7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연구대상을 휴대폰 중독 점수에 따라 상위 25%와 하위 25%로 분류하여 중독적 사용 집단 140명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 140명으로 구분하였다.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 중 학년별 중독 현황을 살펴본 결과 5학년이 40.7%, 6학년이 59.3%로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참조>.

<표 8> 학년에 따른 휴대폰 중독적 사용 현황

학년	중독 집단 n (%)	비중독 집단 n (%)	계 n (%)	$\chi^2(df)$
5	57 (40.7)	71 (50.7)	128 (45.7)	
6	83 (59.3)	69 (49.3)	152 (54.3)	.093(1)
계	140 (100.0)	140 (100.0)	280 (100.0)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55명, 여학생의 경우 85명이 중독적 사용 집단에 포함되어 있어 휴대폰 중독적 사용 여부와 성별과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 참조>.

<표 9> 성별에 따른 휴대폰 중독적 사용 현황

성별	중독 집단 n (%)	비중독 집단 n (%)	계 n (%)	$\chi^2(df)$
남	55 (39.29)	57 (40.71)	112 (40.00)	
여	85 (60.71)	83 (59.29)	168 (60.00)	.060(1)
계	140 (100.0)	140 (100.0)	280 (100.0)	

3.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집단과 비중독적 사용집단간의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실시한 *t*-검증의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중독적 사용집단 (<i>n</i> =140)		비중독적 사용집단 (<i>n</i> =140)		<i>t</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휴대폰 중독 점수	53.71	(11.10)	24.19	(1.55)	31.168***
자기효능감 점수	91.17	(15.28)	98.74	(15.46)	-4.117***
과제수준선호	33.46	(7.63)	35.87	(8.36)	-2.517*
자기조절효능감	35.51	(9.15)	40.51	(7.85)	-4.908***
자신감	29.36	(6.94)	30.64	(5.64)	-1.692

* $p < .05$, *** $p < .00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폰 중독적 사용 집단의 휴대폰 중독 점수는 평균 53.71($SD=11.10$)이고 비중독적 사용 집단의 휴대폰 중독점수는 평균 24.19($SD=1.55$)로 평균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 0.1%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검증 결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에서는 자기효능감 점수가 98.74($SD=15.46$)이었으나 중독적 사용 집단에서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가 91.17($SD=15.28$)로 의미있게 낮았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증해 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과제수준선호’요인에서는 중독적 사용 집단의 평균이 33.46($SD=7.63$) 비중독적 사용 집단의 평균이 35.87($SD=8.36$)로 비중독적 사용 집단이 중독적 사용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 5%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자기조절효능감’요인에서는 중독적 사용 집단의 평균이 35.

51($SD=9.15$)로 비중독적 사용 집단의 평균 40.51($SD=7.85$)보다 낮게 나타나 평균차이에 대한 t -검증 결과 0.1% 유의도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자신감’요인에서는 중독적 사용 집단의 평균이 29.36($SD=6.94$) 비중독적 사용 집단의 평균이 30.64($SD=5.64$)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평균차이에 대한 t -검증 결과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하위 3개 요인 가운데 ‘과제수준선호’요인과 ‘자기조절효능감’요인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이 비중독적 사용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신감’요인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4.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간의 자기통제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실시한 t -검증의 결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1>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

	중독적 사용집단 ($n=140$)		비중독적 사용집단 ($n=14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휴대폰 중독점수	53.71	11.10	24.19	1.55	31.168***
자기통제력 점수	62.55	8.22	71.75	9.19	-8.827***

*** $p < .001$

자기통제력 점수 결과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은 62.55($SD=8.22$), 비중독적 사용 집단은 71.75($SD=9.19$)로 나타나 0.1%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독적 사용집단이 비중독적 사용집단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 집단에서 학년 및 성별 차이를 알아보고 중독적 사용 집단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과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휴대폰 사용에 중독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 양심영(2002)과 장혜진(2002)의 연구와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은 여학생에게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임경미(2005)의 연구 및 여성이 남성보다 휴대전화 중독 증상이 심하다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의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들 선행 연구에서는 휴대폰이라는 매체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보다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휴대폰 매체의 특성 때문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중독적 사용이 두드러진다고 보고(장혜진, 2002; 임경미, 2005)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생의 경우 휴대폰을 소지한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 남녀학생 구분없이 모두 호기심을 갖고 사용하기 때문이고, 아직은 중·고등학생

처럼 청소년기의 심리발달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시기이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둘째,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비중독적 사용 집단의 평균보다 의미있게 낮았다.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 선호의 세 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 중 자기조절 효능감이란 개인이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기대로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초등학생에게서 학업에 대한 확신이 감소하고 이것이 자기조절 효능감의 감소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과 휴대폰 중독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현재까지는 거의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임경미(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휴대폰 중독 학생에게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휴대폰 사용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자마다 상이하지만 장은순(2006)과 김정숙(2003)의 보고에서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자 중 상당수가 만성적인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었다(Young, 1996).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역시 높기에 같은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자기효능감 역시 중독적 사용 집단에서 낮으리라 예상할 수 있고 본 연구 결과에서도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과 자기통제력의 관계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의 평균 점수가 비중독적 사용 집단의 평균에 비해 낮았다. 자기통제력은 선행연구(임경미, 2004; 장은순, 2006; 장혜진, 2002)에서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이 비중독적 사용 집단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이는 휴대폰의 매체적 특성상 개별 사용자가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장 크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제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휴대폰을 더욱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자기통제의 실패는 충동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는 Logue(1995)의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휴대폰 사용에 대한 통제의 실패는 결국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은 학업과도 관련된 밀접한 척도로 휴대폰 중독적 사용 학생의 낮은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은 학교생활이 더 산만하거나 수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등의 반응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휴대폰 사용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초등학생의 소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휴대폰의 사용은 일상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올바른 사용법과 습관이라 할 수 있다. 처음 접하고 사용하는 시기에 새로운 문명이 갖는 장·단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2.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이다. 이전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인터넷 사용이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고려한다면 초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중독의 정도를 파악해보고 심리적, 행동적 특성 중 특히 학업수행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과 관련하여 특히 학교생활 및 학업과 밀접한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을 선정하여 연구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집단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이 낮게 나타나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이 학교생활 중 학업수행적인 측면에서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휴대폰을 처음으로 소지하고 사용하는 초등학생시기에 자칫 잘못된 습관과 무분별한 집착으로 중독적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건강한 사용 방법을 제공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휴대폰 소지에 관한 적절성 여부 논란에도 기본적인 안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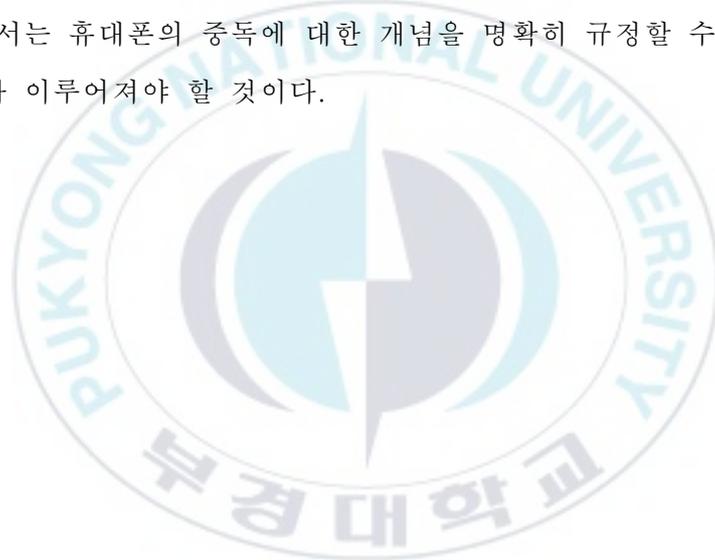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시내 남부교육청, 해운대교육청 관내의 6개 학교 5, 6학년 학생 일부만을 표본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기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경우로 일반화하기에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집단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각 지역별, 교육청별, 급지별로 추출된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시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휴대폰 중독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설문지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터넷 중독 설문지를 참조로 하여 만든 설문지가 사용되었는데 설문지 자체가 얼마나 휴대폰 중독여부를 잘 가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등의 변인들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휴대폰 중독과 연관된 심리적 변인으로서의 개발과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 상·하위 25%를 중독적 사용 집단, 비중독적 사용 집단으로 규정하였는데 아직까지 휴대폰 중독이라 규정할 만한 준거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 중독 또는 중독적 사용 집단이라는 병리적 용어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휴대폰 중독적 사용 현상을 병리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도입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볼 것인지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휴대폰의 중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동진(2005). **내외통제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휴대폰의 과다사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민주(2004).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실태와 중독적 이용**.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아, 최명선(2006). 청소년 휴대폰 중독요인과 그 해결방안: 멘토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심리적 중재 모델. **학생생활연구**, 10(2), 39-65.
- 김남숙(200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영(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남, 김현욱(2002).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8(4), 88-116.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아영(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2), 1-19.
- 김영순(2004). **고등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성숙도와의 관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옥(2005). **중·고생의 휴대폰 사용정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범(2000). **인터넷 중독 하위집단의 특성연구: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숙(2003). **휴대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동성**.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은영(2005). 청소년의 이동전화 애착이용, 효과 지각 및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2002, 2004년 서울·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6), 198-526.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수원(2003).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 양식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진아(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희(200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사용과 대인관계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준범(2000).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 현상에서 나타나는 하위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길성(2001).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와 사회관계의 변화**. 한국정보사회학회
- 박덕호(200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중독증과의 관계 :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순천, 백경임(2004).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의 MMPI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2(9), 135-147.
- 박옥자(2006). **초등학생의 학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과 학교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용기(2003). **대학생들의 이동전화 중독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2), 250-280.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 석(2000).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심영(2002). 고등학교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양심영, 박영선(2005).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향의 예측모형. **대한가정학회지**, 43(4), 1-16
- 오희숙(200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학업적 실패 내성 척도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경애(2004).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심리적 성장 환경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순옥(2003).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응력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규(2003).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고찰.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길(2005). 고등학생의 휴대폰 사용 유형, 우울, 충동성과 휴대폰 과다 사용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최병목(2002).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종숙(2001). 치고 때리기: 문자 서비스의 촉각성 그리고 소통의 쾌락-N 세대의 문자서비스 소비와 문화 읽기. 한국언론학회 학술세미나,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 및 사용문화, 43-83

- 이진영(2006).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변인과 개인 심리적 변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주(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경미(2005).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은순(2006).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동기와 중독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혜진(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 애착, 자기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보통신부(2007). **정보통신 일반 통계-유무선 가입자수**.
- 정진영(2005). **고등학생의 이동전화 중독적 사용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정희(2005).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 실태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미숙(2006). **외로움이 청소년의 휴대폰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실태 및 사회학적 의미고찰**
- 최정애(2004).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병목, 조규영, 연화준, 정무환(2005).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조사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구보고서(05-08).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 **휴대전화 중독 원인분석**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

- 한주리, 허경호(2004). 이동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8(6), 138-165
- 현승구(2004). **또래압력과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광민(2005).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불안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inworth, M, D, S(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 102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s and action*.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Bandura, A. (1988).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The 2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Sydney, Australia.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ong, M. (1997). Generality of academic self-efficacy judgments: Evidence of hierarchical rel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696-709.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 Greenfield, D. N. (1999). *Virtual-addiction*. Oakland, CA: New habinger

Publications Inc.

- Griffiths, M. (1996). Internet addiction: an issue for clinic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Forum, 97*, 32-36.
- Kendall, P., & Wilcox, L.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im, A., & Park, I. (2000). Hierarchical structure of self-efficacy in terms of generality levels and its relations to academic performance: general, academic, domain-specific and subject-specific.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pril, New Orleans.
- Latham, G. P., &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212-247.
- Logue. (1995).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 Marcoen, A., & Brumagne, M. (1985). Loneliness among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25-1031.
- Shaffer, H. J. (1999). On the nature and meaning of addiction, *National forum, 4*
- Schunk, D. H. (1990).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 71-86.
- Vealey, R. S. (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s-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 *Journal of Sports Psychology, 8*, 221-246.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 clinical disorder*. Proceedings of the 104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ug 16, Tronto, Canada.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 Zimmerman, B. J. (1989). A social cognitive views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329-339.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 (1992). Self-motivation of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676.
- Zimmerman, B. J., & Bandura, A. (1994). Impact of self-regulatory influences on writing course attain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 845-862.

휴대폰 사용에 관한 설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어린이들의 휴대폰 사용과 그에 관련된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응답한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고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질문 중 어떤 내용은 평소에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의 상황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응답하면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연구의 정확한 분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혜경

성 별	① 남	② 여
학 년	① 5학년	② 6학년

1. 자기효능감 척도

다음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한 곳에만 √표해 주십시오.



질 문	전혀 아니다	아 니다	약 간 아 니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학교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 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문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기통제력 척도

다음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한 곳에만 √표해 주십시오.

질 문	전혀 아니다	다 소 아 니 다	보 통 이 다	다 소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정해진 규칙이나 지시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있어야 할 때 차분히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놀이나 활동에 불쑥 끼어들어 참견하거나 방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업시간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잘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순서 없이 끼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급하게 일하다가 실수를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즉시 하거나 가지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먼저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친구들과 같이 놀거나 공동 작업을 할 때 다투거나 잘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일이라도 끝날 때까지 그 일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기쁜 일로 흥분했을 때나 꾸지람을 들어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주어진 과제가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사려 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라도 나중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일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하고 싶은 말은 참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열을 내지만 곧 하기 싫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스틸과 모험보다는 안전을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휴대폰 중독 설문지

다음은 휴대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자세히 읽고 자신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곳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해 주십시오.

질 문	전혀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휴대폰 사용에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일을 소홀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휴대폰 이용에 시간을 보내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휴대폰을 이용(통화, 문자, 게임 등)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성적이나 숙제, 학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전화 또는 문자가 왔었는지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휴대폰 이용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에 소홀해지고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7. 휴대폰이 없다면 내 인생은 공허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휴대폰을 사용할 때 누가 방해하면 소리 지르고 고함을 치거나 막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밤새 휴대폰을 이용(통화, 문자, 게임 등)하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휴대폰을 사용할 때 “조금만 더 해야지”하면서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휴대폰에 오랜 시간 매달려 있는 것을 그만 두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2.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하고 울적해지거나, 불안해지고 신경이 날카롭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문자 메시지 또는 통화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단지 기분전환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가족과 있는 것보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6. 예상보다 2~3배 많은 사용료를 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휴대폰 사용에 대한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일상사의 괴로운 생각을 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휴대폰 사용 후에 다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사용불가 지역에 있으면 웬지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중요한 전화들이 올까 하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하다.	①	②	③	④	⑤